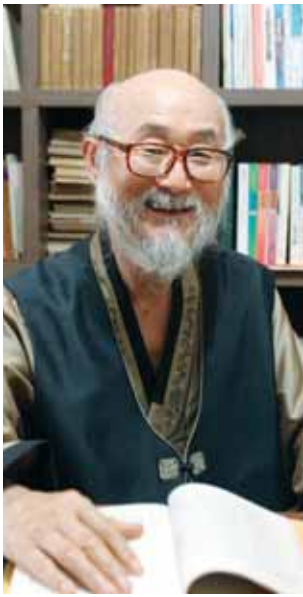


범대순시문학관 3년만에 고향 생가에 '등지'



계림동 재개발로
용강동 하신마을로 옮겨
20일 이전 개관식
문인·제자 등 참석
3주기 추모식 함께 열려

범대순 시인



범대순 시인의 3주기 추모식 및 범대순시문학관 이전 개관식이 20일 광주 북구 용강동 생가에서 개최된 다. 사진은 시문학관 내부. <문학학 제공>

“눈이 내리네/ 피아노가 우네/ 옆에 서서 바이올린이 우네// 무등산에 눈이 내리면/ 거기 있어야 할 사람/ 거기 없네...” (‘눈이 내리네’ 중에서)

‘무등산 시인’으로 불렸던 범대순(1930~2014) 시인. 광주 출신 범 시인의 3주기 추모식 및 범대순시문학관 개관식이 오는 20일(오전 10시 30분) 광주 북구 용강동 하신마을 생가에서 열린다.

추모식은 범대순시문학관 이전 개관식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어서 고인의 시정신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광주전남작가회의, 광주문인협회, 원탁시, 계간 ‘문학들’ 등 생전에 고인이 활동했던 문학단체와 학계 인사들 그리고 유족들의 공동 주관으로 치러진다.

추모식은 경과보고, 회고사, 고인의 문학세계, 시낭송회, 대금연주, 유족대표 인사 등으로 이어진다. 고인의 제자인 정환담 전남대 명예교수는 시인과의 인연 등을 들려줄 예정이며 김준태 시인은 한국적 정서와 동양적 상상력으로 대변되는 고인의 문학세계를 발표한다. 이어 김문동 씨의 대금연주와 고인과 함께 문학활동을 펼쳤던

시인과 제자들의 시낭송회가 펼쳐진다.

범대순시문학관은 고인이 지난 1961년부터 살아온 계림동 자택 2층, 약 25평 규모의 공간에 마련된 서재를 일컫는다. 지난 2014년 2월 문을 연 이곳은 고인이 소장했던 1만여 권의 책이 보관돼 있다. ‘시림(詩林)’과 ‘명상실’, 시인의 생활공간인 ‘지인재(芝仁齋)’ 등으로 명명됐지만, 시인의 타계 후 계림동 일대가 재개발됨에 따라 이번에 고향인 하신마을 생가로 이전하게 됐다. 유족들은 리모델링을 거쳐 책과 유품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범 시인은 고려 말 두문동(杜門洞) 72현 중 한 사람인 범세동(范世東) 선생의 후손으로 1930년 6월 16일 광주에서 태어났다.

광주 서중학교와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오하이오주 데니스 대학 연구 교수를 지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 런던 대학, 미국 아이오와 대학,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연구했다.

1950년 광주 지산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목포여고, 광주사범, 광주제일고, 목포교육대학을 거쳐 전남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활동했다. 퇴임 후에는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금성 범씨 대종회(錦城 范氏 大宗會) 회장 등을 지냈다.

1958년 조지훈 시인의 추천으로 문단에 나온 고인은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품들을 썼다. 또한 청빈했던 선인

들의 삶과 문화를 간결하면서도 서정적인 시어로 담아내기도 했다.

시인은 지금까지 ‘범대순 전집 6권’, 시집 ‘흑인고수 루이의 북’, ‘이방에서 노자를 읽다’, ‘기승전결’, ‘백지시’, ‘파안대소’, ‘무등산’, ‘백년’ 등 16권, 평론집 ‘백지와 기계의 시학’, ‘1930년대의 영시연구’, 번역서 ‘현대영미시론’, ‘W.H 오든 시집’ 등을 펴냈다. 국민훈장 동백장, 문예한국 대상, 광주 예술 부문 시민대상, 금호학술상, 영랑시문학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범대순 시인 유고집편찬위원회는 고인이 평생 쓰고 발표했던 작품을 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유고시집 ‘백년’, 산문집 ‘문림소요(文林逍遙)’, 논평집 ‘범대순 논총’(이상 문학들 간)에는 시인의 문학인생을 가늠할 수 있는 깊이있는 글들이 망라돼 있다.

한편 고인은 생전에 무등산을 1100회 이상 오르고 무등산에 관한 수많은 시를 남겨 ‘무등산 시인’으로 불렸다. 그에게 서석대 등정은 잃어버린 무등의 원시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투병 중에도 임종 직전까지 노트북으로 시를 정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의 010-2680-9426. /박성천기자 skypark@



광주 북구 용강동 하신마을 범대순 시인 생가.



‘사유의 공간’

유·스퀘어 청년작가 정지윤 개인전 24일까지 금호갤러리

지난해 유·스퀘어 문화관 청년작가 전시 공모에 선정된 정지윤 작가가 18일부터 24일까지 금호갤러리에서 개인전 ‘사유의 공간-집+공간’ 개인전을 연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집을 형상화한 도자기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속 ‘집’은 ‘나를 보여주는 공간’이자 ‘나를 알 수 있는 공간’이다. 거주 기능뿐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거울이다.

작가는 물에 녹인 도자기 가루를 틀에 부어 만드는 ‘슬립주입’ 기법을 사용해 다채로운 형상을 보여준다.

전시장에서는 웅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집들을 볼 수 있다. 원통으로 만든 조형물 위에 집들을 배치시키거나 오각형 조형물에 작은 창문, 계단을 덧붙여 집을 표현했다.

‘작지만 꿈을 담을 수 있는 집.’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이다.

정씨는 조선대 미술대학 디자인학부를 졸업하고 조선대 대학원 도자공예 석사학위를 받았다.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디자인문화문화대전 특선 등을 받았고 현재 빛고을공예장작촌 입주작가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조선대 미술대학 한국화 전공 졸업생 모임 ‘선목회’

창립 30주년 기념전 ‘희망의 빛’

19일까지 조선대미술관

▶양계남 작 ‘신망애’



선목회는 1987년 당시 학생들을 지도했던 양계남·김대원·이창주 교수를 주축으로 한국화 활성화를 위해 모인 단체다. 초창기에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했으며 이후 대학원 졸업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혔다.

또한 한국화 전공 졸업생이라도 아무나 회원으로 들이지 않는다. 포트폴리오와 면접 등 심사를 거쳐 작품성,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참여시키고 있다.

매년 정기 회원전 뿐 아니라 국제교류전을 꾸준히 개최하며 교류활동에 힘쓰고 있다. 올해에도 중국·대만 작가들과 국제교류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회원은 고문을 맡고 있는 이창주·양계남·김대원 명예교수, 박문수 작가를 비롯해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초창기 회원들도 꾸준히 활동하며 70대부터 2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대학원) 한국화 전공 졸업생모임 선목회(회장 양홍길)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오는 19일까지 조선대미술관에서 ‘희망의 빛’을 주제로 기념 전시를 연다.

회원 41명이 참여한 이번 30주년 기념전에서는 구성부터 비구상작품까지 한국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품

을 만날 수 있다. 양계남·김대원 고문도 전조출품하며 제자들을 격려한다.

양 고문은 푸른 바탕에 글자 ‘복(福)’ 등을 형상화해 그려넣은 ‘신망애’를 작업했다. 포도송이, 전통문양이 어우러지며 희망찬 세상을 기원하는 마음이 엿보인다.

김 고문은 시원한 분위기의 추상화 ‘소나기 내리던 날’을 전시한다. 빗방울 밑으로 산과 강을 단순화 시킨 형상을 담아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양홍길 회장이 작업한 ‘인간-자연’은 일렬로 나란히 서있는 사람이 눈에 띈다. 분홍빛으로 가득 채운 화폭은 자연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 전해진다.

그밖에 현대 도시를 그린 이병은 회원의 ‘광주전경’, 닭을 통해 잃어버린 꿈을 이야기하는 송영학 작가의 ‘포기할 수 없는 꿈’ 등 참신한 소재를 볼 수 있다.

한편, 선목회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회원 1명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는 ‘올해의 미술상’ 2017년 수상작가는 윤준성 회원이다. 이 상은 양 고문이 힘든 여건에서도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는 전업작가 제자들을 위해 만든 상으로, 창작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문의 062-230-7832. /김용희기자 kimyh@

▶양홍길 작 ‘인간-자연’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